

총치 잡고 치아 살리는 신경치료

손상된 치아 기능·형태 복원
덧 씌우기전 사용 절대금물

치아가 아릴 때 치과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지는 치료 중 하나가 신경치료(근관치료)이다.

치아 내부에는 혈관, 신경 등으로 이루어진 치수라는 연조직이 존재한다. 치수가 충치의 세균에 의해 감염되거나 유해한 자극에 의해 염증을 일으킨 경우에는 통증을 야기하고, 심한 경우는 치근부에 종창(고름 주머니)이 생기기도 한다.

근관치료는 이렇게 손상된 치아 내의 신경 조직을 제거하고 소독 후, 그 공간을 생체친화적인 인공물질로 채워 넣는 술식을 말한다.

신경치료(근관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주로 충치가 심해져 신경(치수)까지 감염된 경우, 치아가 깨져 신경이 노출된 경우, 치아에 미세한 균이 가 있는 경우, 치주질환 등으로 신경이 감염된 경우 등이 있다.

신경치료(근관치료)의 대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필요한 경우 마취를 하고 치아에 구멍을 뚫는다. 감염되거나 염증상태의 치수를 제거하고 근관내의 공간을 소독하면서 적절히 성형한다. 보통 3~4번의 치료가 필요하며, 근관이 좁고 만곡이 심하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는 추가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그 후 생체친화적인 인공물질로 근관내부 공간을 충전한다.

또한 치아의 완전한 형태나 기능회복을 위해서 금관을 하거나 다른 수복물을 해줘야 한다. 만일 치아 손상이 심해 수복물이 탈락되기 쉬운 것이라면 치아 내에 기둥(포스트)을 세우기도 한다.

환자분들 중 가끔 신경치료(근관치료)를 받는 도중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신경치료(근관치료) 시작 후 얼마동안은 치아가 상당히 민감해질 수 있으며, 특히 치료 시작 전에 통증이나 감염이 심했던 경우에 더욱 그렇다. 이것은 치료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며 대개 근관치료가 진행되면서 통증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통증이 심하거나 종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에서 적절한 약을 처방받을 필요가 있다.

신경치료(근관치료) 도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근관치료가 끝나고 이를 씌우거나 최종적인 형태를 회복시켜주기 전에 해당 치아로 씹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치료 중에는 치아가 약한 상태이므로 씹는 힘에 의해 깊게 파열되어, 최악의 경우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근관치료를 받은 후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치아가 다시 충격을 받거나 충치의 재발이나 수복물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는 근관치료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근관치료 수 개월 혹은 수년 후 재발하기도 한다. 필요한 경우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근관치료를 위한 수술(치근단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신경치료(근관치료)는 충치가 깊거나 세균에 감염돼 아픈 치아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기능과 형태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치료이다.

<전남대학교치과병원 보존과 오원만 교수>
/정리=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 주최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

심장수술은 위험한가

“시기 놓치면 더 위험... 겁내지 마세요”

사람은 모르는 분야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심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막연히 심장 수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먼저 심장 수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심장 수술을 담당하는 흉부외과의 정식 명칭은 흉부 및 심혈관 외과라고 한다. 즉 가슴에 위치하는 폐, 식도, 기타 다른 장기들과 심장과 인체의 혈관들에 대한 수술을 하는 곳이고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심혈관 수술을 하는 분야와 심장을 제외한 기관에 대한 수술을 하는 일반 흉부 분야를 구별하고 있다.

◇심장 관련 질환=심장은 우리 몸의 피를 돌게 하는 양수기와 같은 기관으로 대부분이 근육으로 이뤄져 있고 여타의 근육과 마찬가지로 혈관과 신경이 분포돼 있다. 또 사람의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고, 심방과 심실 사이·심실과 대혈관 사이에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존재해 반대쪽으로 피가 역류하는 것을 막고 있다.

따라서 심장 수술에 포함되는 질병은 선천성 심장병, 판막의 질환(협착이나 역류), 심장근육에 분포하는 혈관의 질환(관상동맥 질환), 심장의 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부정맥, 심장의 종양, 심장과 대혈관의 손상, 심장에서 나가는 대혈관인 대동맥이나 폐동맥 그리고 대정맥의 질병, 심장익식이나 인공심장의 주된 원인인 심부전증,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인 심막의 질환 등이 있다.

◇심장 수술=심장에 대한 수술은 상당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한데 심장은 한시도 쉬지 않고 박동을 하고 있으며, 심장 속에는 지속적으로 피가 흐르고 있어 심장 안의 질병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정지시키고 심장 속에 있는 혈액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장이 잠시라도 멈춰있다면 다른 조직에 산소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조직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인공심폐기라는 기계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혈액을 이용하기 위해 인공심폐기와 심장을 연결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심장을 수술하는 데는 심장내의 수술 시간 외에도 인공심폐기의 연결과 이탈에 필요한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환자는 “심장을 멈추게 한다”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중환자실에 가게 된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한다(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등의 이유로 심장수술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흉부외과에서 다루는 기관이 심장, 폐 등 실제 목숨과 관계된 곳임(따라서 수술의 결과를 사망률로 표시)에도 불구하고 심장의 수술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만약 암의 수술과 마찬가지로 때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수술을 한다면 심장의 수술에 의한 사망은 거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다.(이미 1% 미만 혹은 거의 0%의 수술사망률을 가진 심장병도 굉장히 많다)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최근 열린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에서 오상기 흉부외과 교수가 심장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재발 가능성 없이 완치 가능
질병 따라 사망률 1% 이하도
위험 줄인 수술법 속속 개발

심장수술의 위험은 “어떤 심장병인가?”, “현재 심장의 힘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심장에 힘이 적으면 일반적인 심장 수술도 위험해 지고 힘이 너무 없다면 심장이식이나 인공심장 이외의 다른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심장 질환자 수술 사망률=심장병 중에서는 현재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은 눈으로 하고 현재 심장 수술에 포함되는 질환 중에서 수술에 의한 사망률이 10%가 넘는 질환은 복잡한 심장의 기형, 심한 심근 경색이 온 후에 생긴 합병증, 광범위한 대동맥의 질환 정도이고 그 외 대부분의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은 3% 내외의 수술 사망률을 갖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다른 방법이 없어 수술을 한 환자나, 수술의 위험이 대단히 높은 환자도 포함된 수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더욱 안전하고, 게다가 국내 심장수술의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다.

심장수술 후 통증은 의외로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수술 후 심장을 휴식시키는 시간을 주기 위해 가장 통증이 심한 수술 직후의 시간 동안 거의 모든 수술 환자를 인위적으로 잠재주기 때문이다.

심장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기간도 여타의 수술과 큰 차이는 없는데 대부분의 심장 수술에 있어 10여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심장 수술 후 입원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긴 편으로 원인은 수술 후에 회복 속도가 더디서가 아니고 문화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다.

심장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불만중에는 약을 평생도록 복용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물은 심장을 수술하지 않더라도 평생 먹어야 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약물이며 수술한 부위를 보강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는 아주 일부분이다.

다른 부분의 수술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듯이 심장병의 수술에 있어서도 최근 자신의 심장 내 조직을 제거하고 인공 구조물을 넣는 대신 가능한 고쳐서 사용하는 방법, 최소한의 절개를 이용(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하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는 심장수술의 기법을 도입하거나, 혈관을 통한 수술 방법들이 속속 개발되거나 시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술에 의한 사망이나 합병증의 빈도가 0%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병원 흉부외과 오상기 교수>
/정리=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적포도주·땅콩 성분 레스베라트롤 당뇨 치료 효능

美위싱턴대 압트 박사 연구 결과

적포도주, 블루베리, 땅콩 등에 많이 들어 있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당뇨병성 망막질환을 억제 또는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 안과전문의 라 엔드라 압트(Rajendra Apte) 박사는 레스베라트롤이 실명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망막질환인 당뇨병성망막증, 노인성 황반변성, 미숙아망막증의 원인인 망막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신생혈관도 없애 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압트 박사는 쥐의 망막에 비정상 혈관이 만들어지도록 레이저를 조사하면서 레스베라트롤을 투여한 결과, 신생혈관 형성이 억제되고 이미 만들어진 혈관들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쥐의 신생혈관 세포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레스베라트롤이 진행성인자-2기나제(eEF2) 조절경로에 작용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Large advertisement for plastic surgery and dermatology services. It features a woman's face on the left and a grid of service listings on the right. The main headline reads '미용성형수술 &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Below this, it says '광주 성형외과 의사회'. The grid lists various services like '비율개선', '리프팅', '안검하수' etc., with phone numbers and addresses. There is also a small image of a woman in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ad.